

“조계종 서로 용서하고 화합해야”

서용스님 日서 본지기와 인터뷰

총무원장 선거를 둘러싸고 야기된 조계종 사태에 '참회문'을 발표해 수습의 일단을 제시켰던 고불총림 방장 서용스님(조계종 제5대종정 역임)이 12일 일본 대판시 생야현 관음사(주지 원연)에서 본지 기자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종단은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서로 용서하고 협심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2일 오후 3시 일본 대판시 관음사 종장 불사 상량식에서 법회를 증명하고 법어를 한 뒤 이어 가진 1시간여 인터뷰에서 서용스님은 “이제는 합심이 돼서 서로 용서해야지 끝까지 원수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또 “부처님게서도 부모를 죽인 사람일지라도 자비심으로 용서하라고 가르치셨다”고 일깨우고 “서로 도와 올바른 불법을 도모해야

감정으로 대립해선 안된다”고 우려했다.

스님은 “마음이 무서운 것이다”고 전제하고 “마음먹는데 따라 세상이 변하는 것”이라며, “내가 요즘 손목 뼈가 불편해서 일본 병원에 갔었는데, 보통 사람의 뼈가 팔목과 손목을 연결하는 뼈가 떨어져 있는데 나는 붙어있었다는 것이다. 나처럼 뼈가 붙은 사람은 심한 육체노동을 하는 경우인데, 사실 나는 체격으로 봐서도 거의 육체노동을 하지 않았고 다만, 수행의 일환으로 붓글씨를 많이 쓴 것이 전 부이다. 다만, 붓글씨를 쓸 때 마음을 모고 온 힘을 다해 써왔고, 그것이 극심한 육체노동을 하는 것과 같은 힘이 가해져 내 몸의 뼈까지 붙는 작용을 한 것이다.”며 “종단도 이제는 서로 도와 자비심으로 올바른 불법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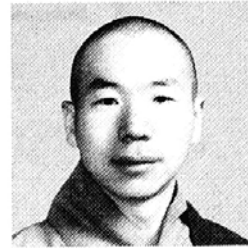
함께 일으켜야지 감정으로 대립해선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내가 ‘참회문’에도 그랬듯이 마음을 텅 비우고 대화해서 서로 돕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며, 함께 수행종도를 일구어야 한다”고 일깨웠다. 일본 대판=위영환 기자 (ryuui@buddhopia.com)

■강화봉축음악회 여는 향적스님

“종파초월 축제 대중화 되길...”

“지역 주민들 특히 청소년들과 함께 부처님 오신뜻을 기리며 음악을 통해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고 싶습니다.”



제로 활성화 되지 못했다고 생각한 스님은 초종파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음악회를 통해 봉축 대중화 분위기 조성에 팔을 걷고 나선 것이다.

“사람은 지역주민과 호흡을 같이해야 합니다.”

스님은 군민들이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는 각종 문화 행사를 통해 강화지역 포교에 나설 계획이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opia.com)

- 21일 강화문화회관 야외무대에서 봉축음악회를 개최하는 강화사암연합회 회장 봉축사주지 향적스님, 조계종 교육원 교육부장으로 5년간 불교 교육포교 현장에서 활동하다 1월25일 보문사 주지 소임을 맡은 스님은 타고세가 강한 강화 지역의 한계를 안타까워했다.

“말로만 듣다가 실제 강화에 와보니 사람이 16개인데 비해 교회는 3백개가 넘는다는 현실을 직시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특수한 상황 때문에 봉축법회와 제등행렬이 매년 이뤄졌으나 실질적인 축



진각종 회당대중사 탄생절 봉축

진각종은 종조인 회당대중사 제98회 탄생절을 맞아 10일 종인원 종조전에서 봉축연화식을 봉행했다.

각해 종인, 성초통리원장, 종림학교 총장과 교장, 서울교구 스승, 신교도 등 5백여명이 동참한 이날 종조일대기(진각종 회당대중사의 생애-불법은 체요, 세간법은 그림자라)가 종조전에 봉정되었다.



경찰청 경승 '나라와 국민위반 대법회'

경찰청 경승실(경승실장 자우)은 13일 서울 서대문 경찰청 직원식당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한 경찰청 경승 기원 대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회에는 경승단 총재 고산(조계종 총무원장), 경찰청 경승 허정·지원, 서울 북부서 경승 세민스님과 진각북지회 혜정 상임이사, 경찰청 김광식 청장, 이근명 차장, 김진중 경찰포교회장, 남강수 불자기수회장 등 5백여명이 참석했다.



성북구 사암연 법요식·경로잔치

성북구불교사암연합회(회장 종본스님)는 11일 성북구민회관에서 1천여명의 사부대중이 참가한 가운데 봉축법요식 및 경로잔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진각종 성초통리원장, 성북사암연 회장 종본스님(경국사 주지), 수석부회장 선우스님(법륜정사 주지), 법현스님(천중사 부주지), 전국비구니회장 광우스님과 진영호 성북구청장이 참석했다.



수원시 약사불자회 창립

수원시 약사불자회(약칭 약불림)가 출범했다. 약불림은 7일 수원시 약사회관에서 조계종 총무원 문화국장 덕신스님, 경기도 포교사연합회 김원중 회장을 비롯 수원시 약사협회 회원과 은누리영전악국 이종욱 약사 등 17명의 불자약사가 참석한 가운데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덕신스님은 법문을 통해 “약사보살의 대원을 실현하는 보살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약불림은 매월 1일 아침 7시에 정기법회를 가질 예정이다.

■김용욱박사 봉원사서 특별강연

“불교의 인식론 젊은이에 심자”



김용욱 박사가 9일 신촌 봉원사(주지 인공)에서 ‘공과 깨달음’을 주제로 강연회를 가졌다. 1천여 대중을 사로잡은 김박사는 중도와 공사상, 연기법과 같은 불교의 교리를 중심으로 불교의 특성과 21세기에서의 위치에 대해 강의했다.

김박사는 불교가 갖는 가장 큰 특징으로 존재에 대한 철저한 인식론을 꼽았다. “유일신을 주장하는 서양종교에서는 오로지 믿음만이 존재할 뿐 존재에 대한 인식론은 전혀 거론되지 않는다”며 “불교는 존재에 대한 철저한 인식론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인간의 근원문제와 우주 삼라만상의 존재 이유를 충분히 풀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중도사상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는 부정의 의미가 아니라 양쪽을 모두 포용하는 대공정의 사상”이라고 설명했다. 김박사는 태고종의 대제도에 대해서도 “앞으로 불교포교에 새로운 방편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욱박사는 “불교를 단순히 피상적인 상식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진지한 고민과 깊은 사유를 통해 내것으로 받아들이고 이 사회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젊은이들에게 불교의 근본의를 깨닫게 해 주자고 역설했다. 이경숙 기자(gilee@buddhopia.com)



정려 조 계종 포교원장 스님은 30일 오후 1시 신산 유근 제 2호련소 호국연무사에서 3천여명의 장병을 대상으로 수계법회를 봉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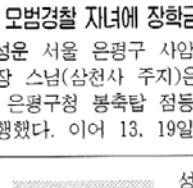
서부 및 은평경찰서에서 오찬법회를 갖고 경찰모범자녀들에게 4백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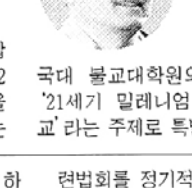
성덕 팔공산 등화사 주지는 20일 대구구치소 연무장에서 경비교도대원과 불자수용자 1백50명을 대상으로 봉축기념 합동수계법회를 봉행한다.



영담 부친 석왕사 주지는 7일 불교신문사 사장에 임명됐다.



모범경찰 자녀에 장학금 성운 서울 은평구 사암연합회 회장 스님(삼천사 주지)은 12일 은평구청 봉축탑 점등식을 거행했다. 이어 13, 19일에는



동국대서 21세기 불교 특강 지광 능인선원 주지는 10일 동국대 덕암세미나실에서 동국대 불교대학원의 초청으로 '21세기 밀레니엄 시대의 불교'라는 주제로 특별강연했다.

“주말·수련법회 정기 개최”

광주전남불자교사모임 김병철회장

“사찰이나 불교단체에서 흡수하지 못하는 청소년불자들을 교화하기 위해 일선에서 있는 불자교사들이 불법홍포에 앞장서겠다는 서원을 했습니다.”

광주·전남불자교사모임의 제2대 회장에 선출된 김병철(광주 승신공교 영여교사)씨는 불자교사모임을 더욱 활



성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김회장은 불자교사들의 자기수행을 철저히 점검할 주말법회와 수련법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청소년 수계법회도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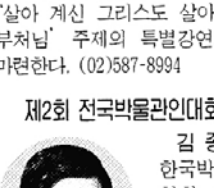
김회장은 “재정자립의 기반을 세우는데 초점을 맞추고 교사들의 신상증진을 위한 실행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opia.com)



이현주목사 초청 강연 법륜 정회 지도법사는 22일 오후8시 서울 강남 정토법당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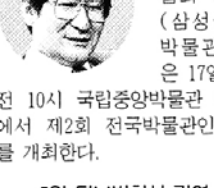
는 19일 오후 2시 대한불교 진흥원 5월 다보법회에서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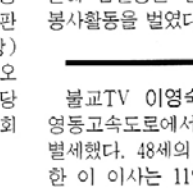
서 ‘현대인을 위한 깨달음의 강좌-100일 법문’의 일환으로 이현주목사(예수살기모임 대표)의 ‘살아 계신 그리스도 살아계신 부처님’ 주제의 특별강연회를 마련한다. (02)587-8994



노인시설 ‘더불어...’ 위문 부산 조흥은행 양정동지점장은 어버이날을 맞아 9일 부산 진구 부암동 소재 노인복지시설 ‘더불어 사는 집’을 방문해 금일봉을 전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벌였다.



김종규 한국박물관협회 회장(삼성출판박물관장)은 17일 오전 10시 국립중앙박물관 강당에서 제2회 전국박물관인대회를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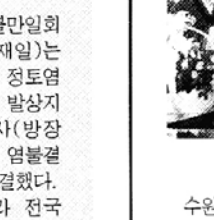
불교TV 이영숙이사가 8일 영등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별세했다. 48세의 일기로 사망한 이 이사는 11일 강남 삼성의료원에서 영결식을 거쳐 경기도 용인에 안장됐다.

염불만일회 중 동림사와 자매결연



전국염불만일회(회장 김재일)는 2일 중국 정토염불의 최초 발상지인 동림사(방장 덕인)에서 염불결연식을 체결했다.

이에따라 전국 염불만일회와 동림사는 매년 양국을 교환방문하며 나무아미타불염불기도와 불교문화 교류하고, 염불에 관한 합동 세미나도 개최하게 된다. 오는 10월에는 동림사에서 한국을 방문, 고성 건봉사 등공대와 염불사찰성지를 순례할 계획이다.



전국염불만일회(회장 김재일)는 2일 중국 정토염불의 최초 발상지인 동림사(방장 덕인)에서 염불결연식을 체결했다.

단위 단체 및 지회 지부 등록 공고

한국불교의 중흥과 발전을 위해서는 재가불자의 교육향상과 체계적인 조직활동에 있습니다.

45년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 전국불교 신도회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불교, 중생을 구제하는 불교를 실현키위해 새롭게 조직 정비를 통한 재가 불자의 자율적인 신도조직을 활성화하려 합니다. 기존 조직의 개편과 신규조직의 등록을 바랍니다.

▶대상: 1. 기존 지부 조직 [99년 개편대회를 통해 등록]

2. 신규 지부 및 시·도 단체, 지회

3. 직장 및 직능 단체

4. 단위 단체

▶등록기간: 1999년 5월 17일 ~ 6월 30일까지

▶등록대상: 재가 불자단체

▶특전: 1. 사단법인 명으로 등록증 수여

2. 등록 단체는 사단법인의 법적 보호

3. 전국신도 조직의 활동 혜택

▶등록장소: 전국신도회 사무국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문의: 사무국 ☎ 02)732-7272~4 FAX: 02)732-7275

아미타 부처님을 신행하는 정토불교강좌(3년과정)

'99학년도 아미타정토대학 신입생 모집

1. 대학 개설·취지

무량광 무량수인 아미타부처님의 가피력과 위신력을 신행하는 정토행자를 양성하고자 전국 염불만일회에 서는 정토법사 3년 과정의 제1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2. 교과목 및 교수

교과목	교수진
인도정토사·중국정토사·한국정토사·영종집요 아미타경·무량수경·관무량수경·왕생론·반주삼매경·무량수경종요·보왕삼매론·미타에참법·염불요론·염불의례·정토미술·정토론·정토음악	한보광스님(동국대)·장휘우교수(동국대)·최봉수교수(동국대)·태원스님(승가대)·주명교수(동국대)·정태희교수(동국대)·강동관교수(동아대)·김영미교수(이화대)·혜 경스님(무선정사)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고
정규반(50명) 통신반(50명)	불교를 적극 신행 하고자 하는자	·입학원서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영합판사진 3매	99년 4월 10일~ 99년 5월 31일 입학금 15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등산 교역회관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 수량이 어려운 자만 지원가능

4. 입학일시

1999년 6월 3일(목) 오후 7시 (등산 불교회관)

5. 원서교부처

◎ 본대학 사무국 ☎ 732-1217, FAX 732-1207 (우)110-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 서울: 보련각(조계사앞) ☎ 02)733-0333

◎ 대구: 삼영물교서림 ☎ 053)425-4097

◎ 광주: 불일서점 ☎ 062)232-7542

◎ 부산: 불서보급사 ☎ 051)246-4321

◎ 대전: 보문서점 ☎ 042)257-0161

◎ 제주: 한라불교신문사 ☎ 064)55-2203

※ 특전사항: ◎ 상기과정을 이수한 자는 졸업장 수여
◎ 졸업자는 소정의 고시를 거쳐 정토염불법사 수여

전국염불만일회 아미타정토대학